

## 봉제용어의 이해 - 2

·구사리누이[사슬뜨기, chain stitch]

장식의 목적을 겸하여 단춧구멍 실로 사슬 모양으로 걸쳐 뜨는 것

·구사리아나[사슬줄 구멍]

본래 회중 시계의 고리 줄을 넣기 위해 만든 구멍. 쪼끼 앞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춧구멍 사이에 세로로 2cm 정도의 크기로 뚫어 만든다.

·구사비소데[췌기소매, wedge sleeve]

몸판(길)에 소매가 달린 선이 췌기 모양임.

활동이 편하므로 운동복의 소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.

·구세[몸새/디아트, dart]

옷감을 몸꼴에 맞추기 위하여 허리나 어깨 등 일정한 부분을 긴 삼각형으로 주름을 잡아 꺾매는 일. 또는 그 줄인 부분

·구세사키(줄임끝/다아트 끝, dart point)

다트가 끝나는 점

·구시누이[흠질, running stitching, fore stitching]

바늘땀을 위아래로 드문드문 성기게 꺾매는 일

·구쓰즈레[신바대, bottom reinforced]

신발에 마찰되어 바지가 빨리 못쓰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짓부리에 대는 판단

·구치기레[입술천, besom]

호주머니의 양 입술을 단으로 대는 감

·구치누노[입술감/입술천]

입술호주머니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

·긱신다이[굴신체, stooping figure]

몸 생김이 앞으로 굽은 몸

·기레하(파)시[(천)조각/자투리, scrap]

재단하고 남은 천조각

·기리가쿠시[입술주머니, 엇선싸개주머니, piping(set-in) pocket],

주머니의 아귀 시접을 엇선으로 싸서 만듦.

아귀 모양이 입술과 같아서 일컬음

·기리지쓰케[실표 쓰기]

옷감을 두 겹으로 포개 놓고 두 겹의 목면 실로 완성 선에 따라 뜯 다음 실의 가운데를 잘라 남은 실표로써 옷의 완성 선을 표시하는 것

·기리카에[(천)바꾸기]

절개선을 넣어서 이를 접합하여 평면을 입체화시키거나 단순한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봉제 기법. 서로 다른 색의 감을 사용하여 강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

·기리카에선[절개선]

옷감을 가른 선

·기모노 다다미[옷개기, folding]

옷접기. 옷을 규격에 따라 접어 겹쳐 놓는 일

·기세[늘림 시접]

시접을 꺾어 접는 경우에 솔기대로 접지 않고 조금 여유분을 넣어 접는 것

·기타케[옷길이/기장, garment length]

드레스, 코트 따위의 뒷목 중심선에서 옷단 끝까지 이르는 총 길이

·김프사(gimp絲)[술실]

신사복의 단춧구멍을 만들 때 사용하는 굵은 실

·나가소데[긴소매, long sleeve]

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 긴소매

·나나메지쓰케[빗금시침질, slash basting]

두 장의 천이 어긋나지 않도록 비스듬히 하는 시침질

·나나이치[일자(형)단춧구멍, straight button hole]

드레스, 셔츠의 단춧구멍처럼 일자형으로 뚫은 단춧구멍

재봉틀 71종으로 만든 단춧구멍이 변하여 된 말이다.

·나라시[날음질/연단]

천을 재단하기 위하여 여러 겹의 천을 펼쳐 놓는 일

·나마코[흰자, curve measure]

구부러진 자

·나오시[고침질, mending, Bushel]

옷이 헐거나 잘못도니 부분을 다시 고치는 일

·나카오모테[겉맞대기]

두 장의 천을 합칠 경우에 양쪽 천의 겉쪽이 맞닿도록 하는 것.

모직물 따위의 더블 폭의 경우는 보통 이와 같이 접는다.

·나카가리누이[중가봉, fitting second try]

중간 가봉

·네무리아나[막힌 단춧구멍]

라펠이나 두장 소매의 단춧구멍처럼 실질적인 구멍은 뚫지 않고 장식적으로만 표시한 단춧구멍

·네카시[깃누임]

재킷, 코트, 조끼 따위의 깃을 제도할 때에 아랫깃 접금 등을 목점에서 몇 cm 정도 경사지게 하는 것

·네크포인트[목점, neck point]

앞·뒤 원본의 어깨선이 목둘레선에 맞닿는 곳

·노리[뒤트기/뒤트임, vent]

신사복의 뒤 중앙 또는 양쪽 옆구리 부분을 터놓은 것

·노바시(스)[늘이기]

줄임 또는 다트로 하지 않고 다리미나 프레스로 옷감을 늘여서 입체로 변화시키는 것

·노치(notch)[가위집(내기)]

U자 또는 V자 모양으로 테일러 칼라 따위에 가위 집을 내어 표시하는 것.

또는 그와 같이 낸 가위집. 봉제할 때 잘린 부분끼리 연결하는 표시로 이용된

다

·누노메(布目)[올 방향/천결]

천의 올 방향

·누이도(托)코[재봉(틀)받침, bed]

재봉틀의 판

·누이메(縫目)[빔/박음새]

·누이메조세쓰키(縫目調節器)[빔조절기, stitch length changer]

재봉틀에서 바늘 빔수를 조절하는 부분

·누이조세쓰데고[빔조절 손잡이, stitch changer handle]

바늘 빔수를 조절하는 손잡이 부분

·누이시로(縫代)[시접, inseam]

접혀서 속으로 들어간 옷솔기의 한 부분

·니들마크[바늘자국, needle mark]

꺾맨 것을 고치거나 시침질 따위를 하여 천에 난 바늘구멍

·니마이소데[두장소매, two-piece sleeve]

두 장으로 이루어진 소매, 흔히 남녀의 테일러 재킷 따위에 달린 소매

·다마구치[입술, piping]

단을 땀. 입술 주머니

·다마부치누이[감싼 시접, binding]

옷 가장자리를 가늘게 감싸 말아서 하는 시접

·다마부치아나[입술단춧구멍]

천을 붙여서 만든 입술이 있는 단춧구멍

·다스키[멜빵, brace, suspenders]

바지를 걸어 어깨에 매는 끈. 곧 멜빵

·다이바[안섵코, facing tack]

안주머니 앓은자리를 안섵 감으로 코단 같이 다는 식

·다이크터링[틀마름(질), die cutting]

공업용 마름질에서 금형을 사용하여 천을 압착하여 잘라 내는 것

·다치나오시[고쳐 마르기, bushel]

보정

·다치메카가리[가름솔 휘감치기/갈라감침질, over casting stotcj seam]

솔기를 갈라서 박음 부분의 끝, 즉 재단선의 폴림을 막기 위해 하는 감침질, 두꺼운 직물이나 신축성이 있는 천에 주로 쓰인다.

·다코누이[통솔, French seam]

바느질한 감의 안을 서로 맞대로 시접 0.5cm로 박은 다음 안으로 뒤집어서 통으로 된 시접을 0.7cm 나비로 박아서 다시 뒤집음

·다키하바[품]

코트의 가슴둘레와 소매 붙임 부근에 들어간 여유분

·다테[세로(솔), side seam]

옷감의 날실 또는 세로 방향으로 낸 솔기

·다테시마[줄무늬, stripe]

길이를 줄이 들어간 무늬

·다테마쓰리[세로 감치기/세로 감칠(질)]

바느질 째이 세로로 나타나게 하는 감침질

·단환 누이[푸서박음(이), overlock sewing]

옷감의 올이 풀리지 않게 휘감치며 박는 일. 특수기계를 사용함

·데누이[손바느질]

손으로 하는 바느질

·덴구[코단, fly]

바지 오른쪽 트임의 단추나 지퍼를 다는 곳의 위부분에 잇대어 댄 단

·덴구우라[코단안, front piece lining]

바지 코단의 안감

·덴핀(뽕)[실채기, take up lever]

재봉틀의 면판에서 아래위로 움직이는 구멍이 있는 판금

·도리시코도[도급일]

도급일

·랩심[겹침 시접, lapped seam]

두 천을 서로 박을 때 한쪽을 랩(lap)으로 걸친 상태에서 한 줄  
또는 여러 줄의 박음질로 박은 솔기

·로스티치[본 바느질, lock stitch]

재봉기로 바느질할 때 윗실과 밑실이 북집에서 나와 교차하는데 아래위의 째  
모양이 같은 바느질

·료마에[겹여밈(옷)/겹자락, double breasted]

재킷 따위에서 여미는 앞길의 단축 두 줄로 달린 것. 혹은 그런 옷

·료타마부치[쌍입술(주머니)]

주머니 입구의 양쪽을 모두 입술로 만들어 단 호주머니

·료후세누이[쌍줄넙술]

초벌 박기를 하지 않고 박음 부분의 끝을 서로 안쪽으로 접어서 상대 천에 맞  
물리게 넣어 박는 방법. 내의와 같이 부피가 적은 옷에서 튼튼한 솔기 처리를 할  
때에 사용한다

·렛데루[상표, label]

상품 표시

·레이후쿠[예복, formal wear]

정식 예장복

·렛데루쓰케(label sewing)[상표 달기]

상표 붙이기

·루빠[밑실걸이, looper]

밑실 북 부분의 조절기

·루스[여유분/넉넉, loose]

① 옷의 디자인에 따라서 넉넉하게 더하는 양

② 루스로크의 경우 의복의 디자인이 여유 있는 모양

·루프(loop)[루프]

단춧구멍 대신 쓰는 실이나 천으로 만든 고리

천으로 만들 때는 바이어스 천으로 만든다. 커프스 등 우아한 블라우스의 싸개 단추에 많이 쓰인다.